

Joseph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Third Edition, 1950

李 相 球

三三〇

著者 요제프·알로이스·슈페터는 一八八三年二月八일에 체코스로바키아의 트리쉬에서 誕生하고, 위르츠大學의 오이겐·폰·비르·바베르크와 프리드리히·폰·위르츠밀에서 經濟學을 專攻하였으며, 그가 後일에 美國의 天才的 經濟理論家로서 英國의 존·메이나드·케인즈와 더불어 現代經濟學界에서 차지하게 되었던 指導的地位는 그가 教育을 받았던 當時의 古都 위르츠의 높은 知性的 氛圍氣와 깊이 連結되는 것이 다. 그가 自由로운 過去의 知的氛圍氣를 喪失하게된 歐羅巴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 美國으로 移

住한 것은 一九三三年으로서, 그는 그때부터 그가 逝去한 一九五〇年一月八일에 이르기까지 理論經濟學의 世界的中心의 하나인 하버드大學 經濟理論제미나르를 指導하는 方便, 一九三七年——一九四一年에는 計畫經濟學會會長 一九四八年에는 美國經濟學會會長으로서 活躍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開催될 國際經濟學會의 初代會長으로 豫定되고 있었다고 한다.

只今 여기서 紹介하고자 하는 書籍은 슈페터의 晩年の 作品이며, 슈페터體系의 內的 發展過程의 最終段階에 位置하는 것이다. 無名의

學徒 숨페 1터 1로 하여금 一躍 一流經濟學者로서
의 地盤을 차지하게 하였든 그의 二五歲때의 出
世作 「理論經濟學의 本質과 主要內容」 (一九〇八
年)은 當時의 슈문터 11號거 1方法論爭의 混亂
中에서 純粹經濟學의 方法論的 內容의 出發點을
確立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서 展開된 一般均
衡論으로서의 靜態論은 動態로서의 經濟發展의 分
析을 主題로 하는 四年後의 名著 「經濟發展의 理
論」 (一九二二)을 誕生시킬 前提이었으며, 이 「經
濟發展의 理論」의 成長으로서 資本主義過程의 새
로운 分析을 呈示하는 二卷으로 된 「景氣循環論」
(一九三九)이 있고, 여기서 크게 發展하여 一層
더 擴大된 視野에서 現代社會의 根本問題와 對
決한 것이 바로 本書이다.

本書의 初版은 一九四二年에 發刊되고 第二版
은 「第二次世界大戰의 歸結」이란 새로운 一章을
添加하여 一九四七年에 發刊되었는데, 여기에 「그
後의 戰後事態進展에 關한 註釋」이란 附錄을 添
加한 것이 一九五〇년에 發刊된 第三版이다. 著

者도 그 序文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本書을
構成하는 各部(第一部 實學說 第二部 資本主
義의 運命 第三部 社會主義는 作用할 수 있으나 第
四部 社會主義와 民主主義 第五部 社會主義政黨
의 歷史的 概觀 附錄 其後의 戰後事態進展에 關한 註
釋)間에는 橋梁이 準備되고 있으며 따라서 表
現의 體系의 統一이 達成되고 있으나, 亦是 各
部는 그 本質에 있어서 自己完了的인 個別的 分
析이라 하겠다. 筆者가 이 書評에서 意圖하는 바
는 여기에 包含되어 있는 個別的 問題에 對해서
論評을 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經濟
學界에 「問題의 書」로서 크다란 波紋을 일으킨 本
書의 問題의 所在을 밝히고 아울러 이에 關聯
해서 各部의 內容을 簡略하게 敘述하고자 하는
點에 있다.

숨페 1터 1는 一九四八年 美國經濟學會 年次大
會의 講演에 있어서 애덤·스미스의 經濟學에 있어
서의 經濟人的 이데오로기는 經濟學에게는 거
이 害롭지 아니한 것이나, 칼·맑스의 搾取·恐

慌·貧困化의 理論은 分析을 無能化시키는 幻想
이며, 資本主義의 動脈硬化를 指摘한 쏜·메이나
드·케인즈의 理論에는 그다지 배울만한 點이 없
다고 論破하였는데, 이것은 本書에 있어서의 슴페
터의 問題인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에서 到達된
하나의 歸結을 다시금 強調하는 것에 지나지 아
니하는 것으로서, 如斯한 歸結이 批判이 아니라 理
解을 克服이 아니라 習得을 標語로 하는 슴페
터의 四〇年間の 研究成果를 結實시킨 本書에
서 表示되었다는 事實은 學界에 크다란 問題를
惹起시키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다.

大部分의 社會主義의 著者 特히 맑스主義의 著者
에 있어서 보는 바와 가리 슴페터도 亦是 「資
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로」이란 觀點에서 分析한
다. 그러나 그에 있어서 資本主義가 崩壞한다는 結
論은 그것만으로서는 全然 無意味한 것으로서,
如斯한 社會的인 豫見을 企圖함에 있어서 重要的
것은 事實과 論證을 集約한 後에 到達되는 事
나 實가 아니고 바로 그 事實과 論證 自體

인 것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슴페터는 本書
第一部 第二部에서 現在 通說이 되고 있는 카·마
맑스와 쏜·메이나드·케인즈의 資本主義崩壞 乃
至 衰退의 理論을 批判하여 그 自身の 資本主
義崩壞論을 展開한다. 勿論 슴페터는 資本主
義體制의 轉換 乃至 革命의 不可避를 認定하는
맑스의 資本主義崩壞論과 資本主義體制의 修正을
企圖하는 케인즈의 資本主義衰退論과의 사이에는
分析에 있어서나 結論에 있어서 無視할 수 없는 差異
가 있음을 認定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슴페터의 立場에서 본다면 兩者間에는 共通
되는 一點이 있다. 卽 資本主義의 崩壞 乃至 衰
退의 原因을 內在的인 經濟的失敗에 求하고 있다
는 點이 그것이다. 이에 對해서 슴페터는 後
述하는 바와 같이 資本主義의 崩壞는 內在的인
矛盾에 基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資本主義의
繁榮이야말로 資本主義가 崩壞한 諸條件을 造出
하여 가는 것이라고한다.

于先 슴페터는 第一部에서 가장 有力한 資

本主義崩壞論인 맑스學說을 批評한다。맑스에依하면 「空想的社會主義」와 區別되는 그의 「科學的社會主義」의 標徵은 社會主義의 到來가 人類의 意思乃至 願望과는 無關係로 不可避의 이라는 것을 立證하는 點에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資本主義의 發展이, 資本主義自體를 破壞하며 社會主義를 誕生시킨 純經濟的인 內在의 矛盾을 內包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資本主義의 崩壞를 資本主義의 內在的 運命으로서 把握하는 이 不可避的崩壞의 理論은 勞動價值說에서 出發해서 剩餘價值論 蓄積理論 資本集中論 大衆窮乏化論 產業豫備軍의 理論 恐慌理論 및 帝國主義論에 이르는 一連의 理論의 歸結인 것이다。참고 1 더 1 는 여기서 맑스의 科學者로서의 獨創性을 높이 評價하고 그의 經濟發展에 關한 重要한 論理 卽 一個의 經濟體制가 自己發展의 途上에서 다음에 올 體制的 骨格을 構築하여 간다는 事物의 有機的發展의 論理를 容認하는 한便、맑스의 勞動價值說을 비롯한 個個의 理論의 論理的 乃至 實證的 吟味를 通

하여 結局 맑스의 理論으로서 資本主義의 崩壞를 說明할 수 없다고 斷定하고, 그 自身の 積極的主張이 呈示되는 第二部에 들어간다。참고 1 더 1 는 第二部の 序文에서 그가 第二部에서 確立하고자 하는 論旨을 明示한다。卽「資本主義體制的 現實的 乃至 展望的인 成果는 資本主義가 그 自體의 經濟的失敗의 壓力에 이기지 못하여 崩壞 또는 衰退된다는 種類의 觀念을 否定할 程度의 것이며, 오히려 資本主義의 顯著한 成功이야말로 資本主義를 擁護하고 있는 社會制度의 顛覆을 通해서 不可避的으로 그 自身の 存續을 不可能케 하며 그 自身の 役繼者으로서 社會主義를 強力하게 志向하는 種類의 事態를 만듦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참고 1 더 1 에 있어서 不可避라고 하는 것은 맑스의 見解와는 相異하여 將次 무엇이 惹起되는나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現存하는 諸傾向이 吾人이 觀察한 期間에 있어서 본바와 같은 樣으로 繼續해서 作用하며 또한 말은 攪亂的인 要因이 介入하지 아니한다면 將次 무엇이

이 惹起될것인가를 意味함에 지나지 아니한다。그러나 그는 資本主義體制에 現存하는 諸傾向은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로 이관 結論을 分明히 志向한 程度의 充分한 強靱性을 保有하고 있다고 斷定함으로서, 資本主義의 崩壞에 對한 그의 크다란 信賴度를 表明한다。

上記의 論旨을 確立하는 過程의 첫 段階로서 舍페-티어는 于先 過去 五〇年間の 資本主義의 發展力을 生産量의 增加率로서 證示하고, 다음의 세가지 問題를 提起한다。卽, 첫째, 資本主義秩序와 觀察된 過去의 生産量增加率과의 사이에는 納得할만한 關係가 存在하는가, 둘째, 如斯한 關係가 存在하다 하더라도 그 生産量增加率은 眞實로 資本主義 그自體에 基因하는 것이었던가 또는 資本主義와는 全然 無關係인 特別히 有利한 條件에 基因하는 것이었던가, 셋째, 資本主義가 將來에 있어서 過去에 본바와 같은 發展을 이루지 못할 理由가 있는가 없는가가 그것이다。

첫째問題에對한 答辯은 資本主義의 本質의 究

明에 依하여 行하여진다。舍페-티어가 資本主義의 本質을 究明함에있어서 가장 重要視한것은 純經濟的인 發展動因으로서의 企業의 「新結合」인메 이 企業의 「新結合」은 恒常 內部로부터 經濟過程을 革新하여 발전시키는것으로서, 이러한 「創造的破壞」의過程이야말로 資本主義에 本質的인 것이다。앞스에있어서는 發展動因은 客觀的인 生産力에있고 이것이나 舍페-티어에있어서는 그것은 企業家の主體的인 「新結合」에있는 것이다。獨占은 여기서는 通說에서 보는 바와같이 資本主義의 老衰를 意味하는 動脈硬化의 症勢로 看做되지아니하고, 生産量極大에 가장 有利한 創造的破壞의 成果로 看做된다。따라서 첫째問題는 肯定된다。둘째問題에 關해서도 舍페-티어는, 經濟學者乃至 歷史家들이 資本主義過程의 內在하지아니하는 重要한 例外的事情으로서 提示하는 다섯가지 事項 卽, 政府의 活動, 金의 生産, 人口의 增加, 새로운 土地, 技術的進步等을 實證的으로 反駁함으로서 資

本主義에 有利하게 答辯한다。이리하여 다음의 셋
 問題 卽 資本主義가 將次 過去에 있어서 본바
 와 같이 혼용하게 作用할 것이라고 假定하는 것은 이
 程度的 正當性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이란 問題에
 直面하게 되는데 둘째—더—는 또 하나의 通說인
 케인즈의 長期的停滯의 理論(投資機會消滅의 理
 論)을 吟味함으로서 이 問題를 究明할 端緒를 얻
 는다。卽, 그는 新企業 乃至 新投資을 爲한 機
 會가 消滅되어 간다고 하는 케인즈學說의 主要論據
 인 欲望의 飽和와 人口의 減少。새로운 土地의
 欠乏, 技術의 進步의 餘地의 減縮, 資本財需要의 減
 退, 現存投資機會의 私的投資領域으로부터 公的投
 資領域에의 移行等에 對해서 「創造的破壞」의 過
 程이야말로 資本主義의 本質的 特徵이라는 立場
 에서 論駁한다。

以上으로서 資本主義가 內在的인 經濟的失敗로
 因하여 崩壞 乃至 衰退한다는 見地에 立脚하는
 두개의 通說을 排擊하고난 둘째—더—는 그 自
 身의 資本主義崩壞論을 呈示한다。卽 資本主義의

顯著한 發展은 經濟的進步自體를 自動機械化하여
 發展動因인 企業者機能을 無用化함으로서 企業者
 의 資本主義的精神 乃至 資本主義體制를 死守하
 고져 하는 情熱을 喪失시키는 것으로서, 이리하
 야 結局 支持者를 잃게된 資本主義體制는 不可
 避的으로 崩壞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그런데 資
 本主義는 그自身の 制度의 테두리를 破壞하여가는
 過程을通해서 社會主義體制的 制度의 테두리를 爲
 한 諸條件을 造出하여가는 것이며, 따라서 그過程
 의 結果는 如何한것에 依하여서도 充滿할수 있는
 單純한 眞空狀態를 呈示하는 것이 아니다。卽, 事
 物과 精神은 그過程에있어서 去益 社會主義的生
 活樣式에 對한 適合性을 가지게끔 變形되어 가
 는 것이며, 그過程의 終局에이로터 資本主義構造的
 모든 支柱가 消失될 때에 社會主義的計劃의 不
 可能性도 消失되는 것이다。勿論 이러한 事態는 아
 직 如何한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여기에
 이르는 傾向은 곳에 따라 그速度에 差異가 있
 을망정 곳의 如何를 莫論하고 깊은 밑바닥에서

作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如斯한 過程을 밟고 解體하게 되는 資本主義體制的 뒤를 따라서 나타나게 된 社會主義는 第三部에서取扱되는데, 資本主義經濟學 乃至 社會主義의 近代經濟理論에 關한 論說이다. 여기서 一個의 事實眞으로서의 社會主義의 分析을 企圖한다. 그에 있어서 社會主義라 함은 商業社會(資本主義는 商業社會의 하나의 特殊形態이며 商業社會는 實地로는 恒常 資本主義이지만 特殊形態로서 나타나다)에 對應하는 것으로서 生産手段에 對한 支配權 乃至 生産 그自體에 對한 支配權이 中央當局에 附與되어 있는 — 換言하면 原則上 社會의 經濟的事項이 私的領域에 屬하지 않고 公的領域에 屬하고 있는 — 制度的類型을 말하는데, 그는 于先 이러한 意味이 있어서의 社會主義體制가 論理上 矛盾없이 機能한 수 있음을 肯定한後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를 比較한다. 그러나 吾人이 注目하여야 할 것은 그 取扱方式이 通常的으로 論議되는 資本主義 對 社會主義의 이란 問題의 取扱

方式和 根本的으로 相異하다는 點이다. 卽 論說에서는 그가 經濟學에 있어서의 沒價値意識의 代表的表明者이며 또한 그것을 方法論的으로 論議한 者이니만큼, 結論이 어떠한 스로 — 眞的인 實價를 가지고 사람들의 感情에 呼訴하게 되는 價值判斷上的 論議를 排擊하고 純經濟的으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와의 經濟能率을 比較한다. 論說에서는 一般的見解와는 相異하여 獨占資本主義經濟가 完全競爭的 資本主義經濟보다 能率的이라고 보기 때문에 前者가 比較된 資本主義로서 登場하게 되는데, 이 比較에 있어서 社會主義는 不確定性의 排除로 因한 費用 浪費의 減少, 過剩生産力의 經濟的利用의 可能性, 失業排除의 可能性, 私的領域과 公的領域間의 衝突의 解消로 因한 經濟能率의 向上, 收入稅源의 國家管理로 因한 租稅의 廢止等の 理由로 말미암아 有利한 立場을 차지하게 된다. 이 經濟能率의 比較問題에 뒤이어 그는 社會主義社會에 있어서의 動機, 責任 管理問題를 社會主義에 有利하게 展開시킨後, 成熟狀態에

있어서의 社會化와 未成熟狀態에 있어서의 社會化에 論及하다。事實 壽命 1터1가 所謂 右翼의 卓絶한 評論家이면서도 이와 같은 純經濟的分析을 통해서 社會主義의 出現의 可能性을 肯定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超學派的인 信念과 豊富한 열매를 맺는 것만이 참다운 것이라는 徹底한 相對主義를 端的으로 表示하는 것이라 하겠다。

第三部에서 社會主義의 特徵이 純經濟的으로 限定되었으며 또한 社會主義가 作用할 수 있다는 것이 承認된以上 當然히 社會主義가 採用할 政治體制의 問題가 다음의 問題로서 提起된다。이러하여 第四部는 社會主義와 民主主義와의 關係를 究明할 것을 課題로 하는 것이나 이것은 民主主義의 原理的 問題에 關한 廣汎한 分析없이는 不可能한 것이니만큼 結局 民主主義의 理論的 解明이 第四部의 事實上의 主題가 된다。壽命 1터1는 古典的 民主主義學說이란 題目下에 理論上으로는 이미 餘地없이 粉粹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奇妙하게도 現實的으로는 나날히 政治家의 聲明 乃至 演

說中에서 그 絶對的地位가 強化되어가고 있는 一八世紀 民主主義學說의 二大支柱인 「公共善」과 「人民의意思」를 남카로운 現實分析으로서 論擊하고자하나 民主主義理論이란 題目下에 그 自身의 民主主義理論을 展開한다。壽命 1터1는 民主主義는 政治的 決定에 到達하기 爲한 하나의 政治的方式이며 따라서 그것은 다른 모든 방식에 있어서와 같이 그 自體가 目的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을 出發點으로하여 古典的學說에서 人民에게 歸屬되었던 「人民의意思」라고 불리우는 全然 非現實的인 創意를 「製造된 人民의意思」를 容認하는 政治的主導力과 代置시킨다。이러하여 壽命 1터1에 있어서 政治的主導力을 獲得하기 爲한 競爭的 鬥爭이 民主主義에 本質的인 것으로서 捕捉되며 따라서 그에 있어서 民主主義라 함은 政治的 決定에 到達하기 爲하여 個人들이 人民의 投票를 獲得하기 爲한 競爭的 鬥爭에 依해서 決定權을 獲得하는 制度的 裝置를 意味한다。그는 이 政治的主導力을 重視하는 民主主義理論이 民主主義過程의 諸事實에

關한 滿足할만한 說明을 論證後 民主主義方式의 成功的인 作用을 爲하야 要求되는 一定한 諸條件을 定式化하고 第四部の 本來의 問題인 社會主義와 民主主義와의 關係를 아래와 같이 論斷한다。即 社會主義와 民主主義와의 사이에는 何等의 必然的關係도 없는 것으로서 一方은 他方없이 存在할수있는 同時에 兩者는 決코 兩立하기 困難한 關係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다。

끝으로 第五부와 附錄에는 社會主義諸政黨의 運動史에 關한 概觀과 現代 및 將來의 世界情勢에 關한 洞察이 있는데, 그는 여기서 漸次的인 社會化의 行進은 全世界를 通한 基本的傾向이며, 米國도 그例外가 아니라는 것을 廣汎하고도 緻密한 現實分析으로서 立證하고 있다。

以上에서 吾人은 經濟學界에 크다란 問題를惹起시킨 本書의 問題의 所在을 밝히고 아울러 各部의 內容을 簡略하게 적어 보았는데, 事實 그 分析過程에서 비로소 크다란 興味와 緊張을 느끼게되는 本書의 價値는 以上の 概略的인 敘述로서는 到底히 推斷될 수 없을 것이다。勿論 餘

1 더1 에게는 케인즈의 魅力은 없다。이미 論及된 바와 같이 舍페1 더1는 資本主義의 純經濟的인 矛盾을 認定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맑스나 케인즈에서 보는 바와 같은 革命的 乃至 政治的實踐이 그 學說으로부터 湧出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에게 케인즈의 魅力을 期待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吾人이 좀더 깊은 根據에서 考察하는 限 그에게 케인즈의 魅力이 없다는 것은 그가 사람들의 感情에 呼訴하게 되는 舍페1 전이나 願望을 排除하고 어디까지나 막스·웨1버1의 立場을 취하여 科學者로서 問題의 本質과 事態의 經過를 分析하고자 하였다는 것에 基因하는 것으로서, 吾人이 本書에對해서 느끼게되는 最大の 魅力은 吾人으로서 하아임 케인즈의 魅力을 秋毫도 느끼게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點에 있는 것이다。結論적으로 吾人이 여기서 強調하고자하는點은, 一般的으로 論議되고 있는 舍페1 더1學說의 實用的無價値는 云謂하기前에 于先 吾人은 舍페1 더1學說의 關心과 學的意義가 那邊에 있는가를 熟考하고 그 理論의 豊富한 背景과 論理的關聯의 正確性 및 一貫性을 正當히 評價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點이다。